

2018 동서가족연합감사예배 드려

하나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기도 올려



▶동서가족연합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습

지난 11월 10일, 동서대학은 형형색색의 주황빛과 빨간빛이 물들어 완전한 가을의 웃이 입혀졌다. 이 날 동서대학에서는 동서가족연합감사예배를 드렸다.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에서 동서가족들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에 맞춰 기도를 올렸다.

예배에 참석한 동서대·경남정보대·부산디지털대 등 3개 대학 구성원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담임)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된다."라며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설교했다.

박 목사는 "동서학원의 3개 대학이 오늘 날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출발도 바로 하나님이 장성만 설립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추수감사절에도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목사는 이날 로마서 14장 17절(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을 바탕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 앞서 유익한 동서대 교목실장은 "오늘 감사예배를 마치면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모두 은혜 충만해지게

해 달라"라고 기도를 드렸다. 동서학원연합성가대는 '주님만을 섬기라'는 찬양을 올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동서가족을 하나 되게 했다. 특히 동서가족들은 오늘의 동서학원 씨앗을 뿌려 수많은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 장성만(張聖萬) 설립자의 애장 찬송가인 '홍요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설립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서가족연합감사예배를 통해 동서가족은 하나님에 장성만 설립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늘날의 동서대학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 더불어 매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일하는 자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

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서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한 동서대학의 교훈은 기독교 진리를 인격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배운 바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진리, 창조, 봉사이다. 또한,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에 따라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매년 감사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한중뉴미디어학원 10주년 행사

동서대 뮤지컬과 학생들 멋진 축하 공연



▶중국 현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우리대학 뮤지컬 학과 학생들

동서대와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韓中합작대학인 '한중뉴미디어학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에 이르렀다. 한중뉴미디어학원은 10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10년 만에 재학생의 규모가 10배로 성장했다.

자매대학인 중남재경정법대학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 중국 우한(武漢)에 소재한 중남재경정법대학은 전 세계 자매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총장 포럼과 개교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중남재경정법대학은 이번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정찬 국제협력처장, 최원일 인사평가처장을 초청하여 "양 대학의 교류협력 및 발전을 가속화하자"며 두터운 우의를 보여줬다. 지난 10월 26일에서 27일에는 중국 현지에서 한중뉴미디어학원 10주년 및 총장 포럼, 중남재 경정법대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특히나 한중뉴미디어학원 10주년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4명을 포함해 우리대학 뮤지컬과 학생 17명이 그동안 연습하며 갈고닦아온 재능들과 함께 현지에서 공연되어 10주년을 축하하는 멋진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관람한 양진명 중남재경정법대 총장은 "학생 수준이 아니라 마치 프로 연기자들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매대학 총장 포럼에서는 장제국 총장이 외국대학들을 대표해 축사를 했다. 장 총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중남재경정법대학과 양진명 총장

의 우리대학에 대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배려를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중뉴미디어학원은 첫째 신입생 100여 명으로 시작했던 재학생 규모가 ▲2015학번 281명 ▲2016학번 276명 ▲2017학번 288명 ▲2018학번 293명 등 총 1138명으로 증가했다.

이 학원을 거쳐 졸업한 학생은 ▲2011학번 114명 ▲2012학번 221명 ▲2013학번 219명 ▲2014학번 267명이다. 교육방식은 3+1시스템으로 1, 2, 4학년을 중국 현지 한중뉴미디어학원에서 수업하며, 3학년은 동서대로 유학을 와서 수업을 받는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양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중뉴미디어학원에는 애니메이션전공과 디지털영상제작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동서대 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중국 유학생 3명이 중국 우한의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로 임용됐던 사례가 있다.

동서대와 중남재경정법대학이 함께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이 운영 중으로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 중 천위안위안과 추자이는 한중합작대학인 한중뉴미디어대학과 동서대의 공동학위제도(3+1)를 졸업한 후 동서대 일반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에 진학한 모교 교수로 임용된 학생들이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인도네시아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참가

장제국 총장 아시아연합대학 설립 제안



▶인도네시아 아시아대학총장포럼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과 장제국 동서대 총장, 김정선 제2부총장, 정찬 국제협력처장, 김정희 국제교류센터장이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 앞서 AUPF 상임이사회가 11월 6일 열렸다.

장제국 총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들은 ▲2019년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페트라 크리스찬대학에서 주최하고 ▲2019년 AUPF는 방글라데시 다포딜 국제대학에서 주최하며 ▲제1회 Asia Faculty Workshop은 중국 광둥의이외무대에서 주최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또 AUPF 공식 출판물인 Asian Higher Education Chronicles의 경우 페트라 크리스찬 대학의 주관으로 연 2회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동순 이사장이 페트라 크리스찬 대학 이사장과 기념품 교환을 하고 있다.

이날 저녁에는 수라바야 시장 주최 만찬이 있었으며 박동순 이사장이 AUPF 외국 참가자 대표로 수라바야 시장과 기념품 교환을 했다.

제17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AUPF)이 11월 7일 인도네시아 페트라 크리스찬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14개국 62개 대학이 참석해 아시아 대학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장제국 총장은 이번 총장포럼 메인이벤트인 토크쇼에서 '조립형대학 개념 통해 교육 변화시킨다(Changing the Context of Education through the Concept of an Assembly University)'라는 제목으로 참가자 대표로 수라바야 시장과 기념품 교환을 했다.

동서대는 11월 8일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참가 대학 중 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2018 산학협력 EXPO’ 관광학부 화제 모아

ICT 기반 피란수도 스토리텔링 관광 체험 진행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7일 부터 9일, 동서대 관광학부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 BEXCO에서 개최 중인 '2018 산학협력 EXPO'에 참가했다. 이에 관광학부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은 화제가 됐다. 이번 행사의 의의는 교육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다.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2018 산학협력 EXPO'라는 슬로건으로 산학협력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과정 중 산학 현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산학 축제이다.

동서대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

홍보부스에서는 TECH TEAM(범인명 엑스와이제트테크)의 'ICT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부산관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R/VR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했다. 더불어 동서대 관광학부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우수사례 소개, 관광·MICE분야 전문인력 사이트 피노키오(www.pinokio.kr) 사이트 홍보안내 등을 운영했다. 특히 행사 첫날 11월 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서대 센텀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동서대 관광학부 조민연 학생으로부터 'ICT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부산관광 어플리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관광학부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동서대 관광·MICE 센텀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홍보화 단장은 "산학협력 EXPO 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엇보다 학계와 산업계 협력을 통해 각 분야별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 산학의 지속적인 상승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도 기대해 본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故 민석 장성만 설립자 3주기를 추모하며

동서학원 장성만 박사의 정신

故 장성만 설립자(1932~2015) -이 일을 가능케 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다.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 4:13).

장성만 박사는 진리·창조·봉사 그리고 믿음·소망·사랑을 남기고 2015년 12월 6일 오전 11시, 주님 품으로 떠났다. 다가오는 장성만 박사 3주기를 기리며 그가 남기고 간 의지를 확인해보자.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은 명백한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조국, 세 번째는 하나님이다. 인간, 조국, 하나님에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이념이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을 양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 콘셉트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4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면, 자립, 협동, 신앙이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성경의 구절로 오는 동서대가 있다. 그리고 동서학원이 있다. 이 정신은 장성만 박사가 없더라도 동서대 학생들이 제자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이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만 박사는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 대학의 기독교 이념은 오래도록 계승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성만 박사는 21세기 모델대학을 지향했다. "작은 대학 큰 개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교육내용, 교육 인프라 확충, 국제화술교류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했다. 그리하여 장성만 박사의 총장 재임 8년간 동서대가 세계로 도약한 비약적 발전기였다. 이를 두고 100년 결집 업적을 10년 만에 이루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1965년 민석 장성만 박사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했다. 설립자인 민석 장성만 박사는 경남정보대학(1965년 개교), 동서대학교(1992년 개교), 부산디지털대학교(2002년 개교), 이렇게 3개 대학을 세워 그동안 10만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약 2만 명의 재학생과 1천 명의 교수,



▶故 장성만 설립자

직원이 재직하는 큰 교육기관으로 키워냈다.

장성만 박사는 1961년 오사카 성서신학교 졸업하고 1964년 미국 신시내티신학대학원 수료, 1975년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일본과 미국 유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미국이 철저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 사회인 것을 통감한 설립자는 한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능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미국 20개 주(州) 50여 개 교회를 돌면서 강연과 설교를 한 결과 많은 동지를 얻어 재미 후원회(재미 재단 이사회)의 전신)를 조직하여 은사인 래쉬 선교사와 함께 1965년 2월 1일 동서학원을 설립하고 경남정보대학교의 전신인 영남 기독교실업학교를 개교했다.

장성만 박사는 1981년 3월 부산 북구에서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12대 총선에서도 여당 출신으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1등으로 당선돼 1985년 당 정책위의장, 1987년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정치 역량을 보였다. '부지런한 정치인'으로 통한 장성만 박사는 정계 활동 당시 의료보험제 전면 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서민을 위한 7대 복지정책 개발 등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했다.

동서대학교 개교

1992년에는 진리, 창조, 봉사를 교훈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인 동서 공과대학(현 동서대학교)을 개교했고 8개학과, 400명이 입학했다. 장성만 총장은 "작은 大學 큰 改革"을 21세기형 대학 모델의 기초로 삼아 '세계화'·'특성화'·'정보화'라는 '교육개혁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정보교육'·'산학 협동교육'·'인성교육'을 4대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교육내용'·'행정제도'·'평가제도'·'연구제도' 등 5개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켰다. 이것이 동서대를 세계화 대열에 올려놓은 지렛대가 됐다. 개교 당시의 허허벌판이었던 동서대는 세계로 도약하는 21세기형 글로벌 캠퍼스로 변했고, 많은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찾아오는 '신 명문(新名門)'으로 기반을 굳혔다.

기독교 사랑의 사회적 실천

2005년 12월 부산지역 목사·장로들과 뜻을 합해 '크리스천 21세기 포럼'을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장성만 박사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마부노호 여부 석방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장성만 박사와 박동순 이사장이 함께 있는 모습

팔을 걷고 나섰다. 2007년 11월에는 사제 1억 원을 출연해 미성년 가장(중고생) 100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 동서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21세기 포럼 문화재단 설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에 주력했다.

열정적 문필활동

1950년대 부산 기독교문인 협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기독교 문예', '아가페', '로고스' 등 월간지를 발행했다. 매일 2시간씩 집필, 총 25권의 책을 출판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사회를 사는 지혜'란 제목의 에세이집은 중국어로 출판돼 중국 교육부에서 선정한 우수 교양서적 100권에 포함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1977년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1978년 대통령 표창(교육공로),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약속의 땅] [예수님 때문에] [일흔일곱 가지의 지혜] [좋은 습관 좋은 인생] [지도자의 길] [발상이 힘이이다] [디지털 사회를 사는 지혜] [플러스 파워]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50년의 결실을 남기고 소천

지난 50년간 땀과 눈물로 일구어놓은 동서학원을 후세들에게 남겨놓고 주님의 품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는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설립자의 애정이 짙게 배어 있는 동서학원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동서가족들과 작별을 했다.

장성만 박사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장 좋아했다. 장제국 총장은 "많은 분들이 설립자님은 강한 분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다. 늘 겸손하게 생활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에게 '나는 물이고 너는 농부다.'라고 하셨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설립자님이 기초를 닦아놓았으니 농부의 마음으로 밭을 잘 일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 설립자님이 세워놓은 3개 대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약속했다.

장성만 박사가 노력 끝에 이룬 학교 정신을 장제국 총장이 이어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소항아트홀에서 故 민석 장성만 박사 3주기 추모예배가 진행됐다. 추모예배의 사회자는

유익신 목사가 진행했다. 순서는 ▲추모영상 시청 ▲개회선언/목도 ▲추기도문송 ▲찬송 ▲대표 기도 ▲성경봉독 ▲특별찬양 ▲말씀 ▲인사말 ▲찬송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이 날 이순길(법인 상임 이사), 3개 대학 교직원 연합 찬양단, 이상규 목사(전 고신대 부총장), 장제국 총장, 박흥석 목사(사상 교회 원로목사)가 자리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3주기 추모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약력

1965.02 영남기독교실업학교 설립
1970.05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
1971~1980 경남공업전문대학 학장
1981 제11대 국회의원(부산 북구/민주정의당)
~200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1982.03 제5대 경남공업전문대학 이사장
1985 제12대 국회의원(부산 북구/민주정의당)
1987 제1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1991 동서공과대학 설립
1995.02 제3대 동서대학교 총장
2001 동서사이버대학 설립
21세기포럼 이사장

대학패션 페스티벌,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쇼

롯데백화점에서 졸업 작품인 패션쇼가 열려



▶런웨이를 하고 있는 모습



▶디자이너 졸업생이 런웨이 하고있는 모습

2018년 11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제19회 패션쇼가 열렸다. 동서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졸업 작품이다. 이 날 자리에는 장제국 총장, 동서대 이사장을 비롯한 패션디자인과 교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패션쇼에 참석했다. 장제국 총장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지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고해주신 교수님들에 박수로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축사를 이었다.

이 날 39명의 학생들이 패션쇼를 준비했다. 패션쇼 제목은 S#40이다. S#은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장면번호를 뜻한다. 39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장면번호를 달고 자신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다는 뜻으로 제목을 지었다고 의도를 전했다.

패션쇼는 총 7가지의 테마로 구성됐다. 순백 컬렉션인 영화 <그랜드부다페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체크인까지 있었다. 겨울에 자주 입는 패딩을 여러 번 겹쳐 작은

디테일을 살리는 옷도 있었다. 패션쇼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 느낌이 드는 옷들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옷을 나누었다. 마지막 테마의 시작은 어린이 모델 2명이 '인디정글'의 노래와 함께 시작됐다. 마지막 테마는 전체적으로 화려하며 커다란 소품이 많았다. 패션쇼의 마지막은 디자이너 졸업생들이 나와서 런웨이 위를 위킹하고 자축하며 끝이 났다.

올해 동서대 디자인 대학 졸업 작품은 루트, 학과 단위로 열렸다. 이에 대해 동서대 학생들은 4년간 쌓은 결실을 내외에 당당하게 보여주며 졸업 후 프로무대에서 동서대의 명성을 확실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20회 환경디자인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는 E1 루트 22명, E2 루트 10명 등 총 32명의 학생들이 건축·실내디자인·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선보였다. 제2회 CA 루트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는 27명의 학생들이 'AD,

ADD 광고, 더하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했다. 학생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또 가치 있는 무엇이든 더해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으로 광고에 음악, 영화, 패션, 캠페인, 사회비판 등 각기 다른 메시지와 표현방식을 더해 다양한 광고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제2회 Graphic 루트 졸업 작품 전시회의 주제는 '모두 함께 그 래픽 하다'였다. 시각디자인 영역의 기초·응용·심화과정을 이수한 46명의 학생들이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팀 작품들을 보여줬다. 제2회 프로그래밍 이노베이션 루트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는 4학년생 29명이 생활용품을 공통 주제로 해 산업과 연계된 작품 58개를 전시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인더스트리얼서비스루트 졸업 작품 전시회의 경우 15명의 학생들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부터 현대의 스마트한 프로슈머 소비자들까지 자유 주제로 각자 2개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동서대, 대상수작 2팀

부산 SNS콘텐츠 공모전, 케이-퍼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SNS콘텐츠 공모전에서 상을 타서 기뻐하는 모습



▶케이-퍼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제8회 부산광역시 SNS 콘텐츠 공모전에서 방송영상전공 학생 4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사람은 방송영상전공 4학년 강병철, 김민우, 김소현, 이우송 학생이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9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공모전 주제는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줘'이다. 공모전 과제는 부산전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전가는 시민화합과 지역사랑 고취를 위해 1984년에 제정된 부산의 상징곡이다. 대상작은 '부산과 함께 춤을'이다. 부산 춤을 돌아다니며 부산시민과 함께 춤을 추면서 정겹고 다이내믹한 부산의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갈매기 춤'을 직접 안무를 구성해 부산 시민과 함께 춤을 추며 큰 인기를 끌었다. 강병철 학생은 "이번 영상 작업은 너무 즐거웠다. 촬영 중 부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부산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구나라고 생각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 인물 중심으로 구성했

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다.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최종 목표는 소외 계층에 빛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영상 교재를 만들어 학교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말했다. 동서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한국모피협회에서 주최한 '제5회 케이-퍼(K-FUR)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대상, 동상, 장려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본선 진출자 8명 중 3명이 동서대 학생이다. 수상한 사람은 대상 한언수(패션디자인·3), 동상 박상인(패션디자인·4), 장려상 김민정(패션디자인·3) 학생이다. 대상을 받은 한언수 학생은 "여생을 하는 동안 고된 하루를 보낸 뒤 노을이 진 하늘 위를 날아오르는 청둥오리 떼들을 보고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디자인 했다."라며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패션디자이너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에게엔 사가 퍼(Saga

Furs, 핀란드) 서머스쿨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케이-퍼 디자인 콘테스트는 국내 모피 산업 발전과 젊은 층의 모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마련돼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서 4월 말까지 접수된 200여 개의 작품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8개의 모피 디자인을 6~8개월 동안 한국 모피협회 회원사들의 협조로 실물 제작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케이-퍼 디자인 콘테스트 결선 무대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았다. 동상을 차지한 박상인 학생 작품은 'Beijing Opera'이다. 중국 명작 영화 '패왕별희'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했다. 장려상 작품은 김민정 학생이 만든 '겨울나무의 기다림'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콘셉트로 고난이 와도 봄이라는 희망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깨알같이 도움 주는 ‘취업 App’ 추천



▷ 사진출처 - 네이버맵스토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소서 준비, 면접 준비 등 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신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준비할 예정인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번 호에서 간편하고 편하게 취업에 도움 주는 App(Application)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나에게 적절한 취업 App을 잘 활용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 공채의 명가

“공채 일정, 자소서 항목, 채용 설명회를 한 번에”

취업 전문 사이트 ‘사람인(saramin)’에서 만든 ‘공채의 명가’ 앱은 요즘 같은 때에 우르르 쏟아지는 많은 공채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볼 수 있게 모아 놓은 앱이다. 단순한 리스트로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월간/주간 달력으로 시각과 마음을 표시해줘서 취업 준비를 정신없이 하다가 날짜를 잊어버리는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준다. 확인하기 귀찮은 기업별 자소서 항목과 지난 시즌의 면접 항목들까지 모두 모아져 있다. 게다가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채용 설명회의 인사담당자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나 혼, 안드로이드도 폰 모두 다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워크넷

“주요 채용 사이트, 취업 지원 정책을 한

눈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앱인 ‘워크넷’은 잡코리아, 사람인 등 주요 채용 사이트를 비롯하여, 지자체 취업 소식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직업 선호도 검사나 교육, 인턴, 보조금 등 내게 맞는 취업 지원 정책 검색 기능도 있다.

■ 뉴스캐어

“이슈의 첫 시작.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가끔 ‘이 이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앱이 바로 ‘뉴스캐어’ 앱이다. 뉴스캐어는 여러 뉴스들을 이슈 흐름별로 묶어주는 앱으로 매일 모든 뉴스를 쟁여보기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맞은 앱이다. 앱 검색 창에 알고 싶은 기사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뜨면서 시간 순으로 정리된다. 스크롤을 내려 ‘처음부터 읽기’ 버튼을 확인하면 첫 시작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즐겨찾기 기능으로 관심 이슈는 저장해뒀다가 뉴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볼 수 있어 시사 흐름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앱이다.

■ 잡플래닛

“재직자들이 알려주는 기업의 진짜 정보”

실제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 직접 작성

한 기업의 리뷰, 연봉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앱이 바로 ‘잡플래닛’이다. 회사가 채용설명회에서 다 알려주지 않는 솔직하고 자세한 장점, 단점들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직자로서 기업 리뷰를 적지 않으면 볼 수 있는 정보가 조금 한정되지만 필요한 만큼 무리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면접 정보도 있고 경력직 면접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어라운드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

취업을 준비하다가 보면 괜히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SNS도 끊게 되고, 혹시나 불합격 소식이라도 날아오는 날이면 기분도 우울해질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앱이 바로 ‘어라운드’이다. 어라운드는 나이와 성별 외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익명성의 소통장이다. 내 주위, 내 포레의 이야기만 볼 수 있게 거리와 나이 대를 설정할 수 있고, 익명의 취업 준비생들끼리 강정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앱이다. 이야기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버제’가 필요한데 이 버제는 내가 상대방의 글에 남긴 댓글에 대비 다 볼 수 있어 시사 흐름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앱이다.

■ 타임파이 캘린더

“나를 위한 똑똑한 취업 스케줄 매니저”

취업 준비를 위한 일정 관리를 스마트하게 하고 싶다면 이 앱에 집중해보자. BIK Ventures에서 개발한 ‘타임파이 캘린더’ 앱은 빠르게 살아가는 취준생(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면접 날짜나 각종 모임, 일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일정도 알람 기능을 이용해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다.

■ 상식 브런치

“취준생 맞춤 시사상식 모음집”

정치부터 IT까지 매일 다방면의 이슈와 상식 용어, 퀴즈를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다. ‘취준에 필요한 뉴스’만 큐레이션 했으니 상식 시험을 치는 대기업/공사/연론사 입사를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앱이다.

■ 인크루트 공채달력

“공채 소식을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기업마다 다른 공채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앱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크루트 공채달력’ 앱을 권유한다. 조건을 설정하면 보고 싶은 기업의 공고만 볼 수 있고, 서류와 면접에 유용한 기업 분석을 열람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입사 지원까지 가능한 앱이다.

자료참고 : 네이버맵스토어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2018 동서대학교 채용박람회 개최

실질적 취업 기회를 제공하다



▷ 사진출처 - 대학뉴스

지난 11월 7일, 동서대학교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2018 동서대학교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참가한 기업은 제조업, 무역 수출, 호텔, 서비스, 건설, 소·도매업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있는 기업으로 ▲토탈소프트뱅크 ▲경동건설 ▲골든블루 ▲디오 ▲라마다앙코르호텔 ▲부산 아쿠아리움 ▲송월타일 ▲씨에스원파트너 ▲아인텔레서비스(LG유플러스고객센터) ▲아즈텍WB ▲엔케이 ▲일산전자 ▲테크로스 ▲한국동산 ▲희창물산 ▲힐튼호텔부산 총 16곳에서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들 중, 해운대구 반송로 토탈소프트뱅크 기업은 항만·물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2대 메이저 회사로 꼽힌다. 연간 매출 100여억 원에 근로자도 107명에 이르며, 동서대 졸업생 5명이 현재 이곳에서 근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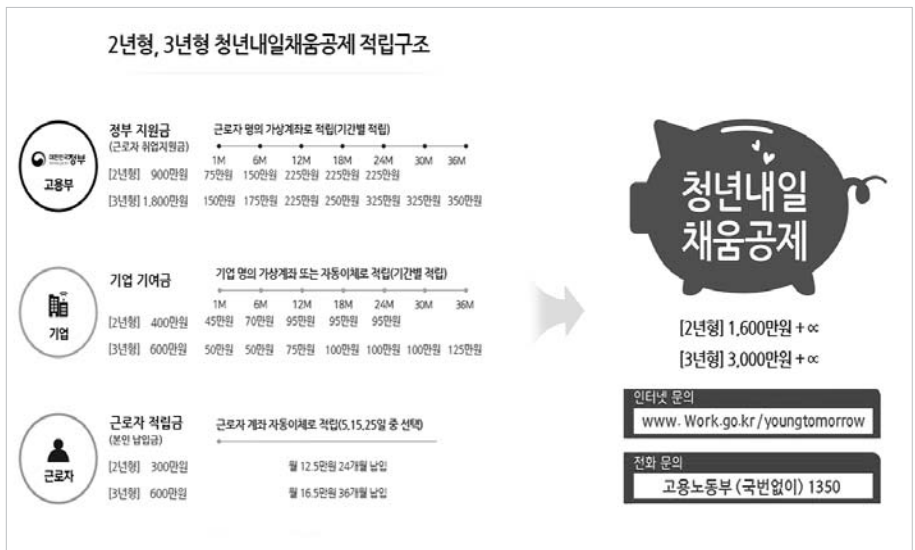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사담당자들을 현장에 보내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보거나 지원 서류를 받았으며 동서대 학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정보와 팁 등 다양한 조언을 했다. 이날 동서대 학생들은 면접 복장을 갖추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지참한 후,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활발한 구직 활동을 했다.

채용박람회에선 직업심리검사, 입사지원서 클리닉(이력서 첨삭지도), 각종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시행됐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동서대 창의인재육성처는 미취업 졸업생과 4학년 재학생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참고 : 대학뉴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취업 꿀 TIP,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목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왔다.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현재 노동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해택의 규모가 ‘2년형’에서 ‘3년형’으로 커진 정책에 주목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얼마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지원기금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

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18세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6조3 규정에 의거해 연소자 증명서(전관자 동 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확인
- 군필자의 경우 :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

■ 지원내용

최소 2~3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후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을 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2년형은 정부가 기업에게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500만 원 (기업순지원금 100만 원 포함) 지원하며, 이 중 기업의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한다.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 기업명의 가상 계좌로 4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 근로자는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및 법정 이자가 지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

■ 신청절차

1. 고용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청년·기업)
2. 정규직 채용 통보(기업→운영 기관)
3. 중소기업 진흥공단(www.sbcpplan.or.kr)에 청년공제 청약 신청(청년·기업)
4. 공제부금 적립(청년·정부·기업)
5. 만기 공제금 수령

*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 홈페이지, 전화 문의 참조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인크루트, 이코노믹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 사진출처 - 청년정책

책 속의 풍경



•책 제목 :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저 자 : 소니노 요루/양운옥 옮김
•출판사 : 소미미디어

“행복은 제 발로 걸어오지 않아. 그러나 내 발로 찾아가야지.” 초등학생인 고아나기 나노카는 책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다. 나노카는 항상 자기가 똑똑하고 친구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선생님, 히토미 선생님은 나노카가 항상 친구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님들처럼 화를 내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른 친구가 이야기 해 주듯이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해 주신다. 그리고 나노카 또한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정하고 멋진 여성인 아바즈레(몸을 파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씨, 통명스럽지만 마음은 상냥한 여고생 미나미, 매일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시는 할머니와 프리가 반 밖에 없는 고양이 ‘그네’까지. 매일같이 나노카는 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어느 날 히토미 선생

님은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 해 오라는 숙제를 내 주게 되고 나노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할머니와 아바즈레 언니 에게 물어보면서 이 숙제를 풀어 나가는데 며칠 후 그녀의 짝꿍인 그림을 좋아하지만 소심한 아이 ‘키류’가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자 이것이 너무 신경 쓰이게 된다. 사실 나노카는 같은 반 친구들이 괴짜라고 놀려도 ‘나’는 똑똑하니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너희는 아직 나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간다. 하지만 키류는 그렇게 이야기 하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용기가 없어서 자신은 그림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당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나노카를 동경하며 항상 ‘나도 너처럼 그런 용기가 있다면...’이라고 이야기 하며 지낸다. 키류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나노카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키류 집 주소를 받아 키류의 집으로 찾아가는다. 거기서 키류의 자신감,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키류는 결국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된다. 그 후 나노카는 할머니 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듣고 그림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어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책을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읽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때는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인줄은 몰랐다. 책에서 말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스포일러라 때문에 말 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확실히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이제 책가가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책 뒷 표지에 책 속에서 항상 ‘행복은 제 발로

걸어오지 않아. 그러나 내 발로 찾아가야지.”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의 한 노래 구절인데 이 책의 주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스스로 걸어오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 일 수도 있다. 행복이 꼭 하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하려면 인생은 소소한 행복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 한뼘 좁, 아니 그 이상의 횡수만큼 사람은 불행해 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올 행복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항상 행복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까?

행복을 원하는 당신에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행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올 행복은 불행 그 이상의 행복이 될 것이다. 행복을 찾아라. 행복을 찾되 엄청나게 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라. 그런 행복들을 찾아 보면 어느 날은 작은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갈구하던 커다란 행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뒤에 올 불행에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불행 뒤에 올 행복을 생각하며 그것 또한 견뎌내자.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이 온다. 그건 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채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김윤창 수습기자
mcdbsckd@gmail.com

다시 돌아온 유행, 지속되는 롱패딩 열풍

유행 아닌 ‘등골 브레이커’ vs 또 하나의 ‘트렌드’



▶ ‘평창 롱패딩’을 사기 위해 줄 서있는 사람들

최근 기온이 부쩍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급격하게 변했다.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겨울 외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위를 둘러보면 두꺼운 옷 중에서도 패딩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가벼우면서 몸 전체에 보온효과를 내는 롱패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롱패딩은 일반 패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 가볍다는 장점과 패션의 멋을 살리는 효과를 주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부담이 되지만 어쩔없이 이 제품을 구매한다. 유행이 점차 심해지면서 제대로 된 소비생활을 하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굳이 이 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억지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겨울철 패딩의 인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과거 7년 전, 노스페이스 패딩 유행으로 인해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오리털 파카가 유행을 끌자 부모들의 허리가 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오리털 파카 가격으로 학생들의 계급을 나누는 풍경도 벌어졌다. 유행이 끝난 지금은 값비싼 노스페이스 패딩

을 차마 버리지 못해 부모님들이 입고 다닌다고 하여 패션 업계에서는 “요즘 등골 브레이커는 아버지들이 뒷산 갈 때 입고 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겼다. 현재 롱패딩 유행 또한 이와 같은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롱패딩은 무릎까지(또는 더 밑으로) 내려오는 긴 오리털(또는 솜털)파카를 의미한다. 역대급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겨울 롱패딩은 대부분의 가게마다 품절이 될 정도로 유행한 패션 상품이다. 특히 악화 일로를 걸던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롱패딩 덕분에 기사화됐다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다.

롱패딩은 ‘벤치 워머’라고 부르는 스포츠 의류였다. 벤치 워머란 겨울 스포츠에서 후보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할 때 주로 입는 옷을 말한다. 이들은 롱패딩을 일종의 체온 보호용으로, 일상복이 아닌 스포츠 의류로 취급하며 착용했다. 이후 스포츠뿐만 아니라, 롱패딩을 즐겨 입는 분자가 늘어났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방송과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애용했다.

롱패딩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기 시작했다. 이에 스포츠 의류 회사들은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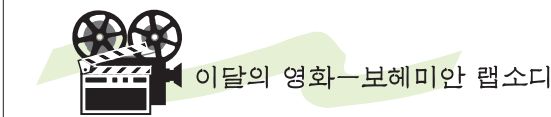


고 이들이 착용한 모습들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행을 잘 따르는 10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롱패딩의 유행은 처음 10대 사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타인들의 모습을 보며 유행을 따라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보온성이 더욱 뛰어난 제품을 찾게 됐다. 특히 ‘평창 롱패딩’은 기존 롱패딩의 특성과 더불어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은 제품이였다.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밤샘 대기를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인기로 인해 올해 한여름부터 아웃도어 업계에 꽤 아닌 ‘롱패딩 논지진’이 벌어졌다. 지난해를 ‘대박’을 한 번 더 이어갈지에 대한 낙관과 회의가 공존해서다. 이에 업체마다 선관매 시기를 앞당겨 고객 반응을 살피고 타사 전략에 귀 기울이는 ‘논지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 패션업계에서는 올해까지 롱패딩이 유행하고 내년부터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 롱패딩으로 승부를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인 셈인데 과연 올해도 소비자 수요가 잇따를지를 두고 전망이 갈린다.



이달의 영화—보헤미안 랍소디

We Are The Champions



•영화 제목 : 보헤미안 랍소디
•영화 감독 : 브라이언싱어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는 공황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가사를 적으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만자 출신의 파퓰러시사의 이야기이다. 파퓰러시사는 194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잔지바르에서 영국 총독부 공무원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오게 된 파퓰러시사는 보컬을 구하던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퀸’을 이끌게 된다. 다른 밴드와는 달리 독창적인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며 성장하던 ‘퀸’은 6분 동안 이어지는 곡인 ‘보헤미안 랍소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월드 스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이다. 2018년 10월 31일에 개봉했으며, 134분 동안 상영된다.

영화의 첫 장면은 프레디가 무대에 서기전 무대로 향하는 뒷모습을 천천히 슬

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이미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입 밖으로 돌출된 앞니와 이국적인 얼굴 개성 있는 옷차림 한번 보면 절대 쉽게 잊지 못할 모습인 프레디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열광시킨다. 하지만 정상에게도 시련은 찾아온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앨범과 곡을 쓰면 프레디를 취급받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찾아온 자신의 정체성과 솔로로 활동하던 여명재라는 제언까지 프레디의 방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영화는 브레이크 없이 관객들을 빠르게 마지막 장면으로 데려다 놓는다. 영화의 결말을 본다면 앞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순간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영화가 끝나기 전 20분 동안은 프레디의 감정들이 이해가 가면서, 이 공연을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생겼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 쉽게 잊어날 수가 없었다.

필자는 영화를 보기 전 록 밴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뿐더러, 퀸이라는 밴드 또한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영화의 스토리도 있었지만, 노래의 역할이 크다. 음악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와 실제 콘서트장에서 음악을 들으며 마치 그 자리에서 열광하며 즐기는 관객이자 팬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We Are the Champions’, ‘We Will Rock You’는 영화관에서 당장이라

도 같이 부르고 싶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We Are the Champions’의 가사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다. ‘우리는 챔피언, 우리는 챔피언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챔피언이니깐’ 이 가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고,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퀸의 다양한 노래를 듣기 위해 퀸의 노래들이 플레이리스트에 담길 거라고 확신한다.

2018년은 유독 음악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는 한 해였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절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또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보헤미안 랍소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슴 가득 채워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운과 감동을 주었고, 퀸의 음악을 알게 해준 영화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 아마 보헤미안 랍소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퀸의 노래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플레이리스트에 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퀸이 활동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시절 영국에는 두 명의 여왕이 있었다.’ 한 명은 실제로 영국에 있는 여왕을 의미하고, 한 명은 음악을 마법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죽을 때까지 음악을 다스리다 한 프레디 머큐리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음악의 퀸이 되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보드게임콘 부산 2018

•기간 : 2018. 12. 15(토)~2018. 12. 16(일)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주최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 해맞이축제 2019

•기간 : 2018. 12. 31(월)~2019. 01. 01(화)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 국제아트페어 2018

•기간 : 2018. 12. 06(목)~2018. 12. 10(월)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주최 : (사)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부산 코믹월드 2018

•기간 : 2018. 12. 22(토)~2018. 12. 23(일)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주최 : (주)에스테크노



파주 송어 축제 2019

•기간 : 2018. 12. 22(토)~2019. 02. 10(일)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94-42
•주최 : 광탄레저타운



울산대공원 장미빛 날 축제 2018

•기간 : 2018. 12. 08(토)~2019. 01. 27(일)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377
•주최 : 울산시실공단



뮤지컬 <그날들>

•기간 : 2018. 12. 23(토)~2019. 12. 30(토)
•장소 : 소환시터러 신한카드홀
•주최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별별 뉴시이' , '에너지 경제'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12월만 되면 거리는 형형색색 조명으로 새 단장을 한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캐럴과 더불어 한껏 고조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즐기는 파티의 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나라별 크리스마스 풍습에 대해 알아보자.



▶영국의 '하이드파크 윈터 원더랜드'

▷사진출처 - 네이버 포스트 '쿠살남Abies'

영국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대강절 기간부터 교회나 가정에서 캐럴을 부른다.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휴일이다. 휴일인 만큼 버스, 철도, 국내선,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을 중지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에브인 24일 밤에는 통나무를 통째로 집안에 들여놓는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향해 온 가족이 장작을 집어던지며 새해 축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음식은 '민스파이'이다. 민스파이는 파이 반죽에 건과일, 향신료, 수의트로 만든 달콤한 민스미트를 속 재료로 채워 넣고 구운 영국식 파이이다.



▶브라질의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출처 - 허정도와 함께 하는 도시이야기

브라질

브라질은 '정열적인 삼바의 나라'답게 크리스마스 열기 또한 남다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해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크리스마스하면 빠질 수 없는 산타클로스는 물론, 방금 책에서 나온 듯한 생생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브라질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대모여 '마니포 게임'을 통해 선물 교환식을 가진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파티를 연다. 브라질은 한국과 달리 많은 쇼퍼센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날 문을 닫는다.



▶호주의 크리스마스 모습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에듀비전 No1'

호주

우리가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때, 지구 반대편 국가인 호주의 경우 뜨거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산타 모자를 쓴 채 서광보드 위에서 파도를 가르는 사람,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트리, 해변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모습 등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호주 사람들은 트리에 저마다 자연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을 걸어 놓는다. 호주는 크리스마스 날씨가 뜨거운 만큼 따뜻한 음식보다 차가운 음식을 주로 먹는다. 해산물 모듬 접시, 생선, 차가운 칠면조 고기와 햄, 파블로바 케이크, 그리고 차가운 버블리 와인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노르웨이 크리스마스 풍경

▷사진출처 - egloos

노르웨이

거의 모든 인구가 크리스찬인 노르웨이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 크리스마스가 시작하기 4주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각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거나 아예 집 전체를 반짝이는 전구로 장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에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을 먹은 후 선물을 풀어서 서로 간에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집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할 파티를 만든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악마나 마녀가 나타나 빗자루를 가지고 간다는 전설이 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가정집 풍경

▷사진출처 - WALLPAPER

미국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나 홀로 집에'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인 만큼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크리스마스 당일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시키는 빨간색과 초록색 스웨터를 입거나 못생긴 스웨터(ugly christmas sweaters)를 입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소중한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트리 밑에 놓인 선물을 풀어드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운송일 칠면조 구이, 사과파이 등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크리스마스 시즌 일본의 'K' 사 치킨

▷사진출처 - Favy.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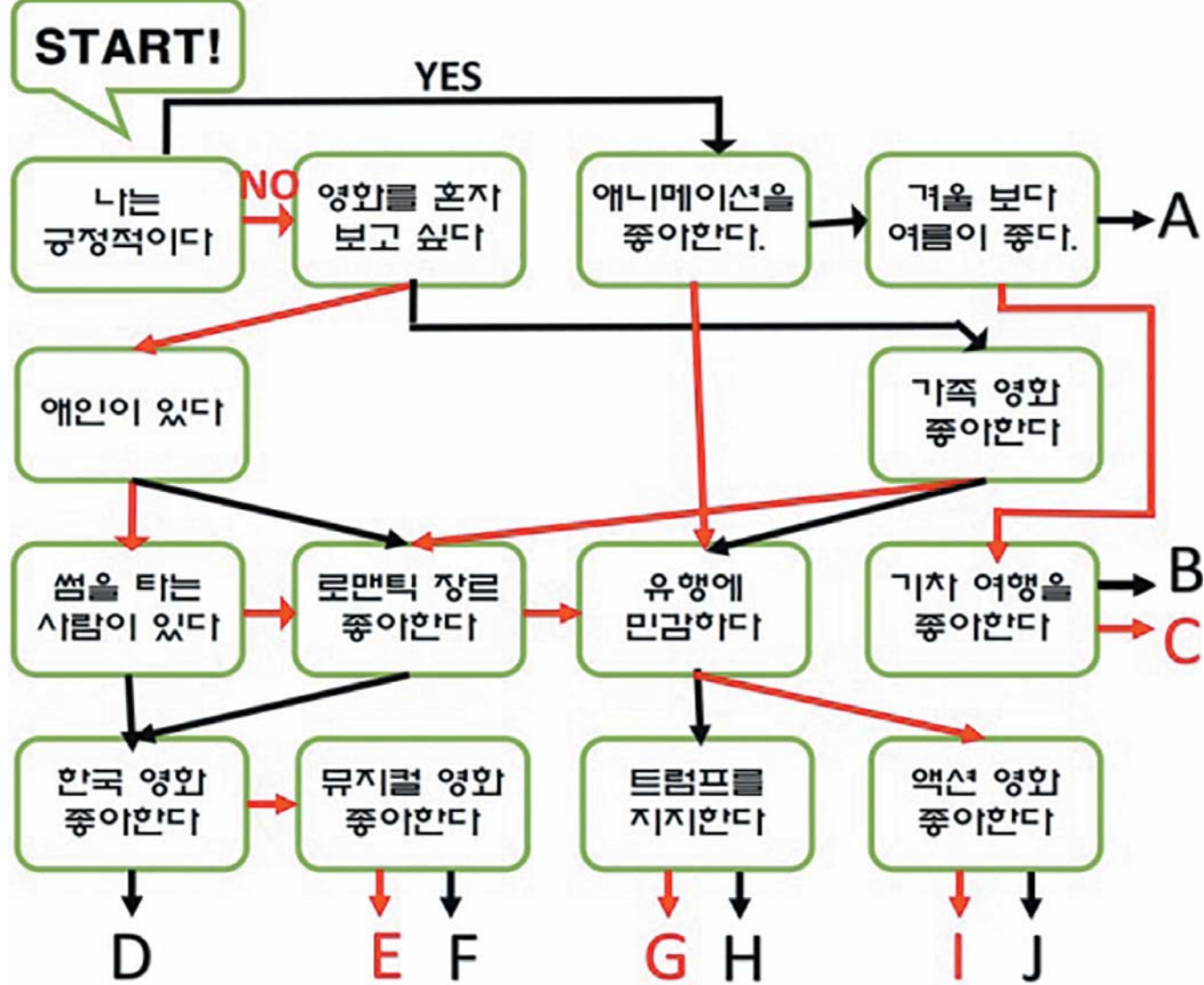
일본

한 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크리스마스 전통이 없다. 게다가 국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프랜차이즈 치킨 'K'사의 치킨이 크리스마스 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소하게 챙기거나, 특별하지 않은 날처럼 지나가는 일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블로그·지식백과 위키피디아

박기희 수습기자
pgh0419@gmail.com

나에게 맞는 2018 크리스마스 영화 찾기!



A : 코코-2017년 개봉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는 자신의 꿈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이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명절의 의미 또한 한 번씩 머릿속으로 되새겨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3백만 관객을 가볍게 넘기며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B : 플라 익스프레스-크리스마스에 가장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플라 익스프레스는 여려분들의 숨은 동심을 자극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10년도 더 된 작품이지만 지금 보아도 이질감이 없으며 설렘과 따뜻함을 전해준다. 배우 톰 행크스가 6명의 뒤편을 하여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다.

C : 겨울왕국-렛잇고~렛잇고~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노래이다. 2013년 개봉하여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을 이룬 겨울왕국!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엘사와 함께 동화 같은 세계로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D : 너의 결혼식-2018년 8월에 개봉한 너의 결혼식은 3백만 관객에 육박하는 관객 수를 국내에서 이뤄내며 성공을 거두었다. 박보영과 김경광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제목부터 결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액션식 구성을 통해 표현하며 과감한 도전을 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E : 어바웃 타임-영국 로맨스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받는 어바웃 타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담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이 영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함께 보는 것을 어떨까?

F : 라라랜드-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 주연의 라라랜드는 국내에서 3백51만 관객을 이뤄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라라랜드의 OST 역시도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뮤지컬 영화와 로맨스를 좋아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라라랜드와 함께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G : 리틀 포레스트-2018년 2월 개봉한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는 설을 잃는 우리의 삶에 휴식을 불어넣어 준다. 영화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힐링을 선물한다. 영화의 자연적인 영상미와 시골의 여유 그리고 주연을 맡은 김태리의 '덕방'은 영화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준다.

H : 나홀로집에2-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이며 크리스마스 날 텔레비전을 켜면 항상 등장하는 영화이다. 개봉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지금 보아도 전혀 어색함이 없으며 케빈은 여전히 귀엽다. 카메오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등장하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I : 맨체스터 바이 더 씨-2017년 가을 개봉한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국내에서 큰 흥행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명작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인간관계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를 추천해 본다.

J : 엔트맨1-2018년 가을 개봉한 엔트맨 2편의 이야기가 아닌 엔트맨 1편의 이야기이다. 2015년 개봉한 엔트맨은 마블 영화임에도 흥행 부분에서는 3백만에 못 미치는 아쉬운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다양한 액션과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엔트맨은 관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고 엔트맨 2편에서 5백만을 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ung0128@gmail.com

■ 인터뷰1-총학생회장 권민철 학생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겠습니다

올해를 보낸 모두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철



▶제26대 모두가 총학생회

2018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18학번 새내기들에게는 새로운 대학생활을 보냈던 한 해였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한 해였던 2018년도였다. 이번 인터뷰는 이런 학생들이 참여했던 축제, 교류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다음 학생회 순서를 넘겨줄 선거만을 앞두고 있는 제26대 총학생회, '모두가' 총학생회 회장 권민철 학생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만나보았다.

Q.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18년 동서대학교 제26대 모두가 총학생회 학생회장 권민철입니다.

Q. 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A. 학생들을 대표하여 1년간 학생 교육, 복지, 행사,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Q. 올해 학생회가 한 주 된 사업 혹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A. 많은 사업 및 정책이 있었지만, 가장 노력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첫걸음은 학생대표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라 생각하였고, 중앙운영위원회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대비 횡수로 약 15회 이상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Q.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인가요?

A. 모든 행사가 기억에 남았지만, 2018년 처음 개최된 '동서교류제'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 또한 학생대표들과 일반학생들 간의 소통을 위해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까 고민하다 학기 초 학생들 간의 소통을 위해 처음 마련된 행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에 많은 보람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Q.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나요?

A.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자' 저희 슬로건입니다. 작년 이맘때 학생대표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짜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Q. SNS에 도시락 배달 소식을 항상 주기적으로 올리셨는데 도시락 배달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었나요?

A. 도시락 배달은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총학생회 사업입니다.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할 때는 솔직한 학생들의 회비로 학생복지가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우들을 대신하여, '동서대학교 재학생' 이름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지역구, 크게는 세상에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학생회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학우 분들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짐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힘들다고 느껴졌던 일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에기에 모든 학생들의 소리를 수렴하고 싶었지만 저마다의 다른 의견을, 원하는 방향 등 모든 학우분들의 의견을 100퍼센트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1년 동안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Q. 학생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A. 영원한 제 파트너 부총학생회장 현민이와 우리 국장들이 밤낮없이 준비하고 실천했던 모든 행사와, 복지, 회의 등 하나하나 빠짐없이 매 순간이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Q. 학생회 일을 이제 내려놓게 되시는

데 학생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학교 학우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어려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019학년도에 학교를 이끌어갈 다음 학생회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 3월로 선거가 넘어갔는데, 책임감 있고 정신력이 튼튼하신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텐데, 임기의 끝자락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26대 동서대학교 총학생회, 모두가 총학생회의 일이 모두 끝났고 차기 총학생회 회장 선거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더라도 '모두가' 총학생회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역할에서 노력을 했고 그들의 슬로건인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겠습니다.'처럼 문제점을 덮고 넘어가지 않고 문제점들을 마주하였으며 학생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총학생회가 들어올 것이다. 모두가 총학생회가 잘 하였던 일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부족했던 점은 더욱 보완해서 내년에도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총학생회 또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내년에도 큰 사고 없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출범하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욱 편한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응원한다.

김윤장 수습기자
mcdbscskd@gmail.com

■ 인터뷰2-패션디자인학과(3) 한언수 학생

따뜻하고 포근했던 기억을 모피에 담다

‘제5회 케이-퍼(K-FUR)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한언수 학생



▶ '제5회 케이-퍼(K-FUR)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한 패션디자인과 학생들



▶ '노을 지는 하늘 위의 청동오리 떼들' 작품

케이-퍼(K-FUR) 디자인 콘테스트는 한국 모피 협회에서 국내 모피 산업 발전과 젊은 층의 모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콘테스트이다. 이번 '제5회 케이-퍼(K-FUR)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에서 대상과 동상, 장려상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중 대상을 수상한 패션디자인 학과 한언수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다. 대상을 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자.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언수입니다.

Q. 공모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품명이 '노을 지는 하늘 위의 청동오리 떼들'인데 제목을 지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며 지으셨나요?

A. 작년 가을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행 때마다 힘들고 고되었던 때들도 있지만 마지막이 되면 항상 그 모든 순간이 다시 떠오르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로 돌아가다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보았던 하늘 위를 날아가는 청동오리 떼들이 고되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노을 위를 날아가듯이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상상생생했던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 그때 느꼈던 왠지 모를 포근함, 따스했던 노을, 아름다운 오리 떼들을 다시 생각하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Q. 완성하신 작품을 보고 강렬하면서도 색깔 조화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색깔 배치를 하실 때 어떻게 잘 맞게 고르시는 건가요?

A. 지도 색깔 배치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었던 여행의 마지막 날 느꼈었던 왠지 모를 포근함, 따스했던 노을, 아름답게 날아가던 오리 떼들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제 모피 의상 속에 꼭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동오

리의 사진 자료를 찾아 그 속에 담긴 본래의 아름다운 색깔을 많이 반영하였고 청동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리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색깔을 조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연 의상인 만큼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세련된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을이 지는 하늘 위를 날아가는 청동오리 떼들'이란 주제와 벗어나지 않도록 색깔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Q.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였고, 완성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A. 무엇보다도 오리의 무늬 속 아름다운 색깔과 유기적인 곡선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이 오리의 shape 형상을 하되 쇼 의상인 만큼 세련되고 강렬한 느낌의 실루엣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 시 강조를 하였습니다. 모피 의상이 완성되는 데에는 7월 초 패턴 작업으로 시작하여 염색작업, 가공작업을 등을 거쳐 9월 초 총 2개월간 모피 의상을 완성하였습니다.

Q. 예상을 통과하신 후 본선을 치렀나요? 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서 느낀 점과 소감이 궁금합니다.

A. 네 1차, 2차 스타일 뎀(일러스트) 심사 후 총 8명의 참가자만이 본선에 올라가며 작품 제작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실제 실물로 제작하여 화보 촬영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소개지 서는 과정이 제가 정말 패션디자이너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 제 꿈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꼭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만드실 때, 만약 아이디어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만의 아이디어 얻는 비법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이디어를 얻는 비법이라기보다는 평소 조금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편이

입니다. 그래서 귀자길에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버스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종종 일부로 그 순간을 즐기 위해 원래 내려야 하는 정거장보다 더 지나쳐서 내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생각이 정리나 안 되거나 할 때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창밖에 비친 사람들과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Q.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요?

A. 저는 패션디자인 학과에 진학한 후제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오면서 제 이야기를 웃 속으로 재미있게 풀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의상을 만드는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목표는 아직 확연하지는 않지만, 모든 패션디자이너의 바람이듯 저 또한 제 개인 브랜드를 내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사실 처음 패션디자인 학과의 진학에 실패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에 진학 한 후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좋은 공모전도 알지 못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열정적으로 공모전을 위해 하나하나 피드백해 주면서 신경써 주셨던 패션디자인 학과 교수님들, 특히나 배움에 패셔디자이너학과 모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에서의 좋은 고생들을 통해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에스더



▶왕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성서』의 「에스더 기」에 등장하는 여성, 유대인 모르드 카이의 양녀로서 후에 페르시아에 왕 아has으로 에스의 왕비가 되었다. 재상 하만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을 박해하려 했으나 왕은 도리어 모르드 카이에게 왕의 의복과 말(馬)을 주어 시내에 입성시켜 에스테르의 말에 의해 결국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걸여 죽였다. 유대인은 이것을 기념하여 프림의 제를 제정하였다. 유대인들은 이걸 기념하기 위해 프림의 제를 제정하였다. 이런 에스더에 대하여 알아보자. 에스더 기 앞서 말한 구약성경의 한 부분이며, 에스더는 이 부분의 주인공 이름이다. 에스더이며, 에스더는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 인물이다. 축일은 7월 1일 개신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에스더 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권신 하만이, 페르시아 영내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를 유대인 출신 왕후인 에스델과 그녀의 양부이자 사촌인 모르다 개가 저지한다는 내용이

다. 또한 본래 이방인들의 축제였으나 유대인들도 지내게 된 축제인 부린 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에스더 기는 성경에서 아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 집권 제2년에, 유대인 모르든 개 (그때 수사 성에는 모르든 개라는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배나린 지파에 속한 아이러의 아들로서, 할아버지는 시므르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모르든 개는 유다 왕 여고니 아가 바빌론 왕 느브가네살에게 사로잡혀 올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에스더 기 3장 5절~6절)는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꿈에서 용 두 마리가 서로 싸울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의로운 민족은 패니 상태에 빠져 하느님께 울부짖고, 그러자 갑자기 큰 강이 생기고 의로운 민족이 승리하게 된다. 모르든 개는 꿈에서 깨고 나서, 이게 된 꿈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 후,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는 내시 빅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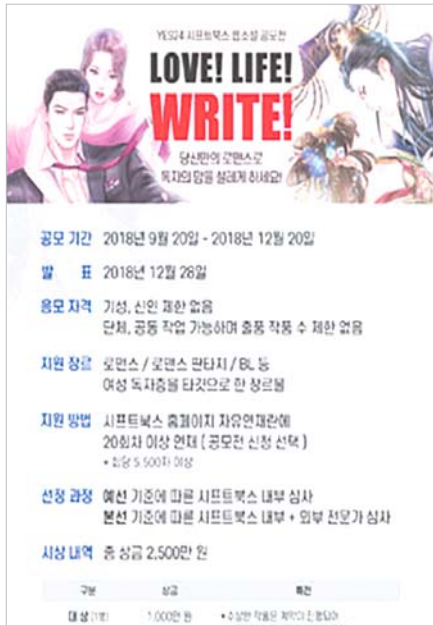
과 데레 쓰는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다 개가 엿듣게 된다. 모르든 개는 이 일을 더 조사하여서 그들이 크세르 크세스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알아낸다. 모르든 개는 이 일을 신고하였고, 두 내시는 처형된다. 크세르 크세스는 이 일을 기록하였고, 모르든 개에게는 선물을 주었으며 그를 왕궁에서 근무하게 한다. 한편 이 두 내시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권신 하만은 이 일로 모르든 개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이후 크세르 크세스 3년으로 전환된다. 크세르 크세스는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해 180일짜리 대잔치를 벌인다. 일곱째 날에 크세르 크세스는 왕후 와 시디의 아름다운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왕후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왕의 부름을 갑자기 거부한다. 그러자 크세르 크세스는 광장히 분노했는데 대신 무무 간이 "왕후 때문에 온 나라의 부녀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대를 수 있습니다." (에스더 기 1장 17절) 그러니 왕후를 폐위 하라고 간언하고 크세르 크세스는 그 말을

들어 에스더 왕후를 폐위한다. 왕후 자리가 공석이 되자, 크세르 크세스는 새 왕후를 간택한다는 어명을 공포한다. 모르든 개의 사촌 누이이자, 동시에 그의 양녀인 에스더가 아름다운 용모로 인하여 왕후로 간택된다. (에스더 기 1-18) 성경에 의하면 이때가 크세르 크세스 7년이다. 다만 이때 모르든 개는 자신과 에스더가 혈연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후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다 개가 거만한 귀족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자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우지만 연회를 베풀어 하만을 안심시킨 뒤 아has에로스 황제 앞에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한 에스더의 기지로 좌절된다.

▷사진출처 : 네이버 (왕후 에스더)
자료출처 : 위키백과 (에스더),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김윤장 수습기자
mcdbscskd@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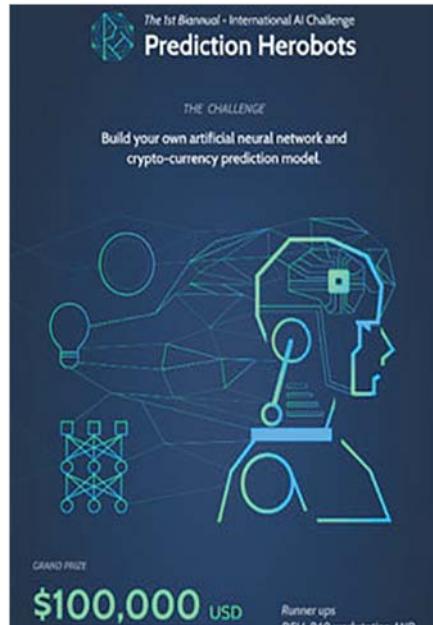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YES24 시프트박스 제4회 웹소설 공모전
- 공모분야: 글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12.20. (목)
- 접수방법: 시프트박스 홈페이지 참조



- 제2회 이 동화가 재있다 공모전
- 공모분야: 글
- 공모대상: 미등단 신인 및 기성 작가
- 접수기간: ~2018.12.21. (금)
- 접수방법: <http://bir.co.kr/awards/>



- 제1회 국제 Artificial Intelligence 공모전
- 공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8.11.23. ~2018.12.28.
- 접수방법: <https://www.predictionherobots.com/>



- 2018 참포도나무병원 옥상광고(옥탑광고) 디자인 공모전
- 응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모집일정: 2018.11.26. ~2018.12.23.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cham.podonamu@gmail.com)



- IBK부산경제봉사단 7기 모집
- 공모분야: 봉사
- 공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일정: 2018.11.01. ~2018.12.23.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ibkhappypr@naver.com)



- 에듀윌 크리에이터 리그 영상 공모전
- 공모분야: 영상/UCC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일정: 2018.11.20. ~2018.12.20.
- 접수방법: 'ecre@mail2.eduwill.net' 으로 참가신청서와 제작한 영상 콘텐츠 제출



- 데싱디바 대학생 서포터즈 데싱프렌즈 2기 모집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2018.11.21. ~2018.12.16.
- 접수방법: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http://naver.me/xLZcUH8N>



- 제1회 아트인블록 콘테스트
-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일정: 2018.11.23. ~2018.12.21.
- 접수방법: <https://www.artinblock.com/>



- 제3회 카피킬러 공모전 -UCC
- 공모분야: 영상/UCC
- 공모일정: 2018.11.19. ~2018.12.22.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접수방법: contest@copykiller.com 접수



- 세미콘코리아 2019 대학생 기자단 1기 모집
- 공모일정: 2018.11.19. ~2018.12.14.
- 응모대상: 대학생/대학원생
-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https://blog.naver.com/semi_blog/221401306141



- 제1회 채널A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극본공모전
- 공모일정: 2018.12.20. ~2018.12.31.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접수방법: 채널A 드라마 극본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3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 모집일정: ~2018.12.31. (월)
- 응모대상: 대학생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marketing@parkland.co.kr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크 :
 리 :
 스 :
 마 :
 스 :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들뜨기도 하는데
 그리하여 이번 N 행시는 '크리스마스' 이다.
 학우 여러분의 센스 있는 N 행시를 기대해본다.
 예시)
 크 : 크리스마스
 리 : 이(리)렇게
 스 : 스피드하게 지나간다.
 마 : 마지막으로
 스 :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자.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입함에 넣거나 010-3331-8399로 연락주세요
 ※ 12월 24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
 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2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